

1991年 7月15日

257(5)

복잡심장기형 小兒患者 치료 美 보스톤병원 研修경험적용

서울대병원 큰 성과 기대

국내에서는 아직 경험

부족과 환자관리미흡으로
수술합병증과 높은사망률
을 보이는 복잡심장기형소
아환자들에 대한 치료가
서울대병원에 의해 활발히
이루어질 전망이다.

최근 美보스톤 소아병원
에서 소아심장외과부분아
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
서울대 흉부외과 金容珍
교수는 이번 연수에서 국
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의
서도 외과적 치료에 어려움
을 겪고 있는 완전교정술이
불가능한 좌심실발우부전
증 및 단심종 등의 복잡심
장기형에 대해 일차적보조
수술요법후 2차적인 양방
향성상대정맥-폐동맥간락
술요법의 개발정립에 많은
노력을 얻었다고 밝혔다.

金교수는 특히 초저온조
환정지법을 이용하여 복잡
한 심기형의 수술치료에
정확성을 기하고 동시에
수술 후 고평동맥압상승등의
치료와 주요장기의 조직부
종을 감소키위해 체외순환
기법을 향상시키고 적절한
혈과확장제및 체온에 따른
만류량조절도 신중이및 조
기요양의 합병증및 수술
사망을 감소시킬수 있었다
고 강조했다.

따라서 金교수는 이번
연수경험에 바탕이된 서울
대병원의 경우 국내에서도
아직 미흡한 좌심실발우
부전등의 수술치료와 단심
증 및 기타복잡기형에서의
천공형 폰타누수술의 적용
확대로 이러한 질환환자의
수술치료가 100%를 높이겠
다고 밝혔다.